

꼬마 사마귀 마니와 빨강 자동차 (반짝반짝 길 위의 친구)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깊고 푸른
숲 속에 마니라는 꼬마 사마귀가
살았어요.

다른 사마귀 친구들은 나뭇가지에서
흔들흔들 놀고 있었어요.
"마니야! 이리 와서 같이 놀자!"
친구들이 손짓손짓 했어요.

하지만 마니는 다른 곳을 뻗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숲 끝에 있는 커다란 길을
말이에요.

쌩쌩 부릉부릉
그 길 위로는 알록달록한
자동차들이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우와! 저게 뭐지?"
마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키 큰 소나무 할아버지가
살랑살랑 가지를 흔들며
말했어요.
"저것들은 식로 만든
괴물들이야, 우리처럼 숨을
쉬지도 못하고, 기름을 먹고
사는 무서운 친구들이지!"



"정말 무서워요?"
마니가 꼬물꼬물
기어가며 물어봤어요.

엄마 사마귀가 후욱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마니야, 저건 우리랑 달라,
우리는 이슬과 작은 벌레들을
먹고 살잖아, 하지만 저
친구들은 다른 걸 먹고 산단다,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엄마는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며
말했어요.
"그건 기계야, 마니야, 생각하지
못해."

"하지만 엄마, 저 빨강
자동차는 정말
반짝반짝 예뻐요!
혹시 저 친구도 나처럼
생각하고 느낄까요?"
마니가 두근두근
설레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니는 계속 궁금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주르륵주르륵 내렸어요.
"으악! 비다!" 풀벌레들이 깡충깡충
뛰며 숨었어요.



비가 그치자 길이 진창진창
되었어요.
"와! 비가 그쳤다!" 마니가 풀잎
밑에서 쏙 나왔어요.

그때였어요! 마니가 좋아하던
빨간 자동차가 길가에 끙끙 서
있는 거예요.



"어? 저 빨강 친구가 왜 안 움직이지?"
마니가 가우똥 고개를 기울였어요.

자동차 바퀴 하나가 깊은
진흙에 푹 빠져 있었어요.

"앗! 저 친구가 아픈가 봐!"
마니의 마음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마니는 살금살금 자동차에게
다가갔어요.

쿵!
갑자기 자동차 문이
열리고 덩치 큰
아저씨가 나왔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바퀴가 빠졌네!"
아저씨가 머리를 긁적
하며 말했어요.

"와... 정말 커다랗다!"
마니가 고개를 젓히며
말했어요.



아저씨는 꺾치 꺾치 자동차를 밀어봤지만
꼼짝도 안 했어요.
"휴... 이거 큰일이네, 늦겠다!"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어요.



마니는 아저씨를 보며 생각했어요.
'아저씨도 나처럼 걱정하는구나,
저 빨간 친구도 우리처럼 도움이
필요한가 봐!'



그때 마니에게 번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마니가 으쓱
어깨를 펴며 말했어요.

마니는 자신의 날카로운
앞다리로 바퀴 주변의
돌맹이들을 꾸욱꾸욱
밀기 시작했어요.

"으랏차차! 으랏차차!"
마니가 꺵꺵 대며 힘을
냈어요.
돌맹이들이 하나씩
굴러굴러 굴러갔어요.



"자, 이제 다시 해볼까?"
아저씨가 다시 자동차를
우왓! 하고 밀었어요.

"쭉! 뵙!"
바퀴가 진흙에서
쑥 빠져나왔어요!
"와! 됐다!"
아저씨가 방방 뛰며
기뻐했어요.

아저씨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니를
딱 발견했어요.



"어? 이 작은 친구가 여기 있었네?
혹시 네가 돌맹이를 치워준 거니?"
아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봤어요.



마니는 끄덕끄덕 고개를 흔들었어요.
"정말 고마워, 작은 친구야!" 아저씨가 활짝
웃으며 마니에게 살살 손을 흔들었어요.

마니도 꾸벅 인사를 했어요.
빨강 자동차가 다시 부릉부릉
소리를 내며 출발했어요.
엔진 소리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작은 친구야!
또 만나자!"



마니는 숲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내가 빨간
자동차를
도와줬어요!"

"정말이야, 마니?"
엄마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바퀴 주변에 있던
돌맹이들을 내가 치워줬어요,
그랬더니 자동차가 다시 달릴
수 있게 됐어요!"

엄마 사마귀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작아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구나."



"맞아요, 엄마! 그리고 자동차 아저씨도 우리처럼
걱정하고 기뻐해요, 자동차도 우리랑 다를 뿐이지,
도움이 필요한 친구인 것 같아요!"



다른 사마귀 친구들도
와글와글 모여들었어요.
"정말?
마니가 자동차를 도와줬다고?"
"우와! 마니 정말 멋져!"

키 큰 소나무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 하며 말했어요.
"그렇구나, 마니야,
이 세상의 모든 친구들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구나"

그날 이후 마니는 더 이상
빨강 자동차를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지만
않았어요.

"언젠가 또 도와줄 일이 있을까?" 마니가
두근두근 설레며 말했어요.

숲은 다시 짹짹 뽕뽕 평화로운 소리로 가득했어요.
마니는 언젠가 빨강 자동차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 날을
기대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도와주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